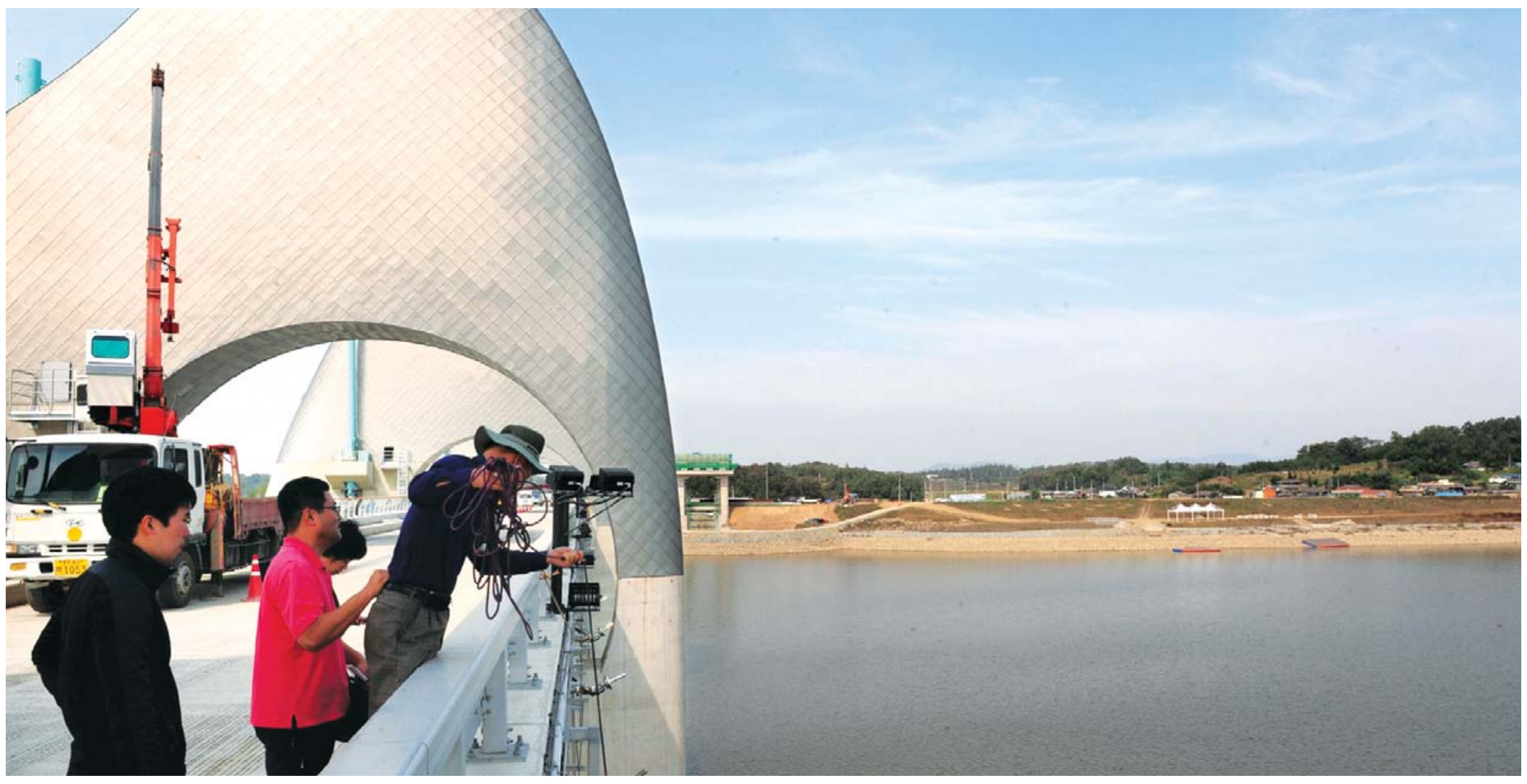
나를 뛰어넘다 SmArt 동강대학
http://www.dkc.ac.kr 062-520-2552~5 SMART 동강대학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광주 9/22℃ 목포 10/21℃ 여수 14/21℃

단기 4344년 (음력 10월 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9092호 1판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지난 10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영산강 상류인 광주시 서구 치평동 덕흥보에서 수질검사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산강 물 맑아졌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4개 지점 수질 조사

상하류 전 지점 BOD 절반 이상 감소

pH 중성화·부유물질 줄고 산소 증가

영산강이 맑아졌다.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하천 수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지난 2009년 10월 착공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등 자정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일보의 의뢰로 광주지역 영산강 수질을 검사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광주1 (치평동 광주천 덕흥보), 광주 2-1(서창교), 광산(승촌보) 등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이 대폭 감소했으며, 총인은 강수일수 및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영산강 상류에 해당하는 서구 치평동 광주 1지점의 수질을 측정한 결과 pH 7.9, BOD 2.3㎎/L, SS 21.5㎎/L, 총인 0.118㎎/L, DO 9.8㎎/L 등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공개된 지난 2008년 pH 7.4, BOD 4.5, SS 26.1, 총인 0.107, DO 11 등에 비해 대부분의 수치가 개선된 것이다. 지난해인 2010년에는 pH 7.8, BOD 2.9, SS 21.2, 총인 0.083, DO 10.1 등이었다.

또 영산강과 광주천의 합류지점인 서구 서창동 광주 2-1지점 역시 2008년 pH 7.5, BOD 7.1, SS 12.9, 총인 1.011, DO 9에서 pH 7.3, BOD 3.6, SS 12.0, 총인 0.879, DO 9.4 등으로 자정능력이 향상됐다.

광산(승촌보)은 지난 2008년 pH 7.3, BOD 5.8, SS 23.2, 총인 0.657, DO 9에서 pH 7.4, BOD 2.7, SS 17.5, 총인 0.613, DO 10.2 등의 변화를 보였다.

나주 죽산보의 경우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관할 밖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별도의 시료채취가 이뤄졌다.

같은 방법으로 동일 지점에서 채취한 샘플을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2008년 BOD 4.9, SS 10.1, 총인 0.365에서 이번에 각각 2.3, 15.0, 0.120 등으로 변화했다. 부유물질이 다소 늘어난 것은 인근 교량 재가설 등 일부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천의 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BOD인데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천 수질의 전반적인 변화를 판단하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전과 후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질 검사는 하천의 양쪽 끝과 중간의 물을 각각 채취한 뒤 이를 섞은 것을 시료로 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 쉬운 pH와 용존산소는 현장에서 측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 수질 변화 추이

지점	연도	pH	BOD	SS	총인	DO
광주1 (치평동)	2008	8.4	4.5	26.1	0.107	11.0
	2010	7.8	2.9	21.2	0.083	10.1
	2011	7.9	2.3	21.5	0.118	9.80
광주2-1 (서창교)	2008	7.5	7.1	12.9	1.011	9.00
	2010	7.2	5.6	21.9	0.581	8.10
	2011	7.3	3.6	12.0	0.879	9.40
광산 (승촌보)	2008	7.3	5.8	23.2	0.657	9.00
	2010	7.2	5	24.3	0.331	8.90
	2011	7.4	2.7	17.5	0.613	10.2
나주 (죽산보)	2008		4.9	10.1	0.365	
	2010		4.3	34.7	0.280	
	2011		2.3	15.0	0.120	

■ 용어설명

▲pH=수소이온 농도 지수. 7이면 중성, 7미만은 산성, 7 이상은 알칼리.

▲DO=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 수치가 높을수록 깨끗한 물이다.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미생물이 물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깨끗한 물로 만드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

▲SS=물속에 떠다니는 고형물질.

▲총인=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광주·전남 국회의원 20명에 야권통합 물어보니

"대통합보다 연대가 현실적"

"민주 호남지역 무공천 반대"

야권연대 '박원순식' 경선 방식 선호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대통합과 야권연대 여부가 범야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부분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야권대통합보다는 야권연대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또한 내년 총선에서 호남지역의 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민주당의 '무공천' 보다는 '박원순식' 경선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30일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전원을 대상으로 야권대통합 및 연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를 넘는 15명이 야권대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야권연대가 현실적이라고 답변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이 야권대통합에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이념과 노선 등도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에서 우선 정치권 밖의 '혁신과 통합', 시민사회세력 등과의 통합을 이뤄 외연을 넓힌 뒤, 차기 총선 등에서 야권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김영진·김영록 의원은 야권대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김성곤·이낙연·장병완 의원 등은 야권대통합을 추진하되 차선책으로 야권연대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 공감대 형성 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에서 호남지역 야권연대 방법과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과 같은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지난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무공천 방식의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호남에서의 경선은 민주당의 기득권 고집이며, 순천에서 야권연대를 흔든다면 전국적인 야권연대가 파탄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며 과감한 인재 영입과 공천 혁신, 민생정책 강화, 혁신 지도부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지난 28일 여의도에서 회동을 갖고 손학규 대표에게 민주당 쇄신방안, 전당대회 개최, 야권통합 문제, 인재영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국회 도가니법 처리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3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50%를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유형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도 통과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